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2곳 운영

전북도, 전북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병원 지정... 중증환자 신속 진료·응급치료 지역 관리 체계 확립 기대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확보하고 응급실 감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가 도내에 2곳이 운영된다.

전북도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난 13일부터 지정·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할 별도의 격리진료구역

과 응급실 진입 전 사전 환자분류소 등을 갖춰 운영된다.

응급실 앞에 마련된 사전 환자분류소에서는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중증 환자를 따로 선별하고,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 치료하게 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신속한 진료와 집중적 치료가 가능하고, 응급실 내 감염상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병원인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갖춘으로써 코로나19 중증환자 응급치료에 대

한 지역 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현 시점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필요성이 크다"며 "중증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유·초·중·고 사상 첫 4월 개학 여부 오늘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오는 23일에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학연기 관련 안건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일(17일)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아직 중대본 차원에서 정식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15일), 내일(16일) 사이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보다 하루 더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여부를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개학연기 조치에 이어 이번에도 일주일 이상 연기를 4월 개학이 이뤄질 지 여부는 물론 개학을 연기한다면 뒤이는 학사일정도 1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추가 개학연기 관련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교육현장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개학연기 여부와 발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자 주말에는 사회관계장관서비스 등에 4월6일 개학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1학기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여름방학을 2주 이상 유지하며 겨울방학은 1월7일로 순연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지만 교육부는 "미정"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학교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추가 개학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뉴시스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7일까지 신청 받아 최종 10개사 선정 계획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는 전북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은 혁신금융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라북도가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 사업은 도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창업공간 무상제공,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지원 등),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메일(jb88277@naver.com)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핀테크 산업 전문 육성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지원체계를 확보했으며, 이들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내

핀테크 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기틀을 다졌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도권 금융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여 전라북도가 혁신금융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하루새 완치 303명 증가 '최대'

완치율 13.8%... 완치 40일만에 1000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관정을 받은 환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했다. 지난 15일 하루 사이에만 303명의 완치자가 늘어났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 환자는 74명 늘어, 나흘째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총 확진 환자 수는 8236명이고, 이 중 1137명이 완치 관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추가 완치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날 기준 완치율은 13.8%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0시 기준 10.2%에서 3.6%포인트 올랐다.

완치자 수가 누적 1000명이 넘는 것은 지난달 5일 2번째 환자(56세 남성)가 국내 최초로 격리 해제된 지 40일 만이다.

특히 하루 동안 303명이 완치 관정을 받아 국내 코로나19 전과 이후 처음으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완치자가 나왔다.

완치자 수도 나흘째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하루 동안 177명, 13일 204명, 14일 120명의 완치자가 나왔다.

/뉴시스

정부, 미국도 특별입국절차 검토

"코로나19 대유행 고려, 전세계 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

정부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아시아 5개 국가·지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을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히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 확대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상황과 국제적으로 어떤 대응 노력이 효과적인지 지켜보며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미국은 현재 특별입국절차의 적용대상 국가 지역은 아니다"며 "현재 발생률이나, 확진자 발생경향, 규모, 각국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대책본부의 제안에 따라서 (특별입국절차) 결정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입국절차는 국내 입국 자체를 막는 입국제한조치와 구분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온 내·외국인 입국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등의 엄격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개발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자가진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우선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와 협조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아시아 5개 국가·지역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특별입국절차와 관련, "유럽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시 발열 체크,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입국 외국인들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감을 이끈 바 있다.

정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방역 대응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